홍명보부터 김상식까지…2021년 K리그1 '새 감독시대'

현대家 라이벌 모두 사령탑 교체·새 시즌 준비
'슈퍼매치' 부활 꿈꾸는 서울·수원도 새 출발 의지

다가올 2021년 프로축구 K리그1의 감독 교체 바람이 거세다. 리그를 선도해 온 '현대가(家)' 라이벌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 나란히 수장을 모두 바꾼 가운데 부활을 꿈꾸는 '슈퍼매치' 주인공 FC서울과 수원 삼성도 새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준비한다.

K리그1 사령탑에 연쇄 이동이 일어났다. 새 시즌을 앞둔 겨울 휴식기에 4팀이 새 감독을 선임했다.

가장 눈을 끄는 건 지난 시즌 라이벌 전북에 밀려 K리그1과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도 모두 준우승에 그친 울산이다.

김도훈이 감독이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뒤 물러나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새 지휘봉을 맡겼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쓴 히딩크호의 주장으로 현역 시절 큰 인기를 누린 홍 감독은 지도자로 변신해 2012 런던올림픽 사상 첫 메달(동메달)을 획득하며 주가를 높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표팀을 맡고 참가한 2014 브라질월드컵에선 준비기간 부족과 선수 선발 잡음 등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씁쓸하게 물러났다.

홍 감독은 월드컵 실패 후 중국 무대에 진출했다가 2017년 11월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지도자에서 행정가로 변신해 3년간 한국 축구의 행정을 맡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 FIFA U-20월드컵, 2020 AFC U-23 챔피언십 등 굵직한 대회에서 성과를 냈다.

고심 끝에 지도자 복귀를 결심한 홍 감독 K리그1에서 '2인자' 낙인이 찍힌 울산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2021년 명예 회복을 노리게 됐다.

연령별 대표팀 시절 '원팀'을 강조했던 그는 울산 취임 인터뷰에서 "울산이 K리그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의 홍 감독 선임에 앞서 전북은 지난 22일 김상식 수석코치를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했다. 소속 출신 선수가 지휘봉을 잡은 건 김 감독이 처음이다.

2009년 전북에 입단해 2013년까지 선수로 뛴 김 감독은 2014년 코치로 변신해 최강희 감독과 모라이스 감독을 옆에서 보좌하며 12년간 전북맨으로 활약했다.

그는 누구보다 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울산이 '홍명보'란 새 인물로 다음 시즌 큰 변화를 예고했다면, 전북은 익숙한 얼굴로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를 둔 선택을 했다. 김 감독도 "전북은 우승 DNA를 가진 팀이다. 변화보다 우리가 잘하는 축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홍명보 감독, 박건하 감독, 박진섭 감독, 김상식 감독.

'슈퍼매치' 라이벌 FC서울과 수원 삼성도 새 감독 밑에서 2021년을 준비한다.

지난 시즌 도중 부임해 수원의 K리그1 잔류와 AFC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이끈 박건하 감독은 새 시즌을 앞두고 코치진 개편과 함께 선수단 리빌딩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로 떠난 타가트의 대체자로는 강원FC와 경남FC에서 검증된 장신 골잡이 제리치가 거론되고 있다.

감독대행의 대행으로 지난 시즌을 마쳤던 서울은 외국인 지도자를 물색하다 이달 초 박진섭 전 광주 감독을 낙점했다. 박 감독은 지난 시즌 광주의 파이널A 진출을 이끈 바 있다.

또 박 감독이 떠난 광주는 지난 시즌 서울의 감독대행을 맡았던 김호영 감독을 선임하며 빠르게 빈자리를 메웠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광주가 감독 자리를 맞바꾼 셈이다.

이밖에 '생존왕' 인천 유나이티드도 지난 시즌 중도에 부임해 '잔류 드라마'를 쓴 조성환 감독과 새 시즌을 시작하며, 2019년 성남FC를 떠나 K리그2로 향했던 남기일 감독은 1년 만에 제주 유나이티드를 승격시키며 다시 K리그1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다.

서선욱 기자

KB국민은행 박지수, 개인 통산 10번째 라운드 MVP

MIP는 삼성생명 이주연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의 센터 박지수(193cm)가 3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8일 "박지수가 기자단 투표에서 총투표수 84표 중 66표를 받아 3라운드 MVP로 선정됐다"라고 전했다.

박지수는 인천 신한은행 김단비(13표)와 아산 우리은행 김정은(5표)을 큰 차이로 제쳤다.

박지수는 3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2분36초를 뛰며 22.2점 15.2리바운드 6.2어시스트 2.0블록을 기록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와 공헌도 부문 전체 1위로 블록에서는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지난 12일 용인 삼성생명전에선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득점(33점) 타이 기록을 세웠고, 27일 부산 BNK와의 경기에선 개인 통산 세 번째 트리플더블(11점 22리바운드 10어시스트)을 기록했다.

지난 1라운드 MVP로 현역 선수 최다 수상자가 된 박지수는 올 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10번째 라운드 최우수선수가 됐다.

또 신정자(전 신한은행)의 WKBL 통산 라운드 최다 MVP 선정 기록(12회)에도 더 다가섰다. WKBL 심판부, 경기 운영 요원, TC, 감독관 투표로 선정되는 기량발전상(MIP)은 삼성생명 이주연이 차지했다.

이주연은 총투표수 33표 중 13표를 획득해 통산 세 번째 라운드 MIP가 됐다. 3라운드에서 7.0점 2.0리바운드 2.4어시스트 1.2스틸을 기록했다.

김미희 기자

허훈,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1위

2년 연속 1위 향해 순항

프로농구 부산 KT의 허훈(25)이 올스타 팬 투표 2년 연속 1위를 향해 순항했다.

KBL이 지난 11일부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결과 허훈이 2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만3009표를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다.

허훈은 지난 시즌 올스타 팬 투표 1위와 함께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전주 KCC의 송교창이 2만1775표로 2위, 원주 DB의 허웅이 2만1680표로 3위, KT의 양홍석이 2만1621표로 4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올스타 팬 투표서 2위를 차지한 김시래(창원 LG)는 1만9570표로 5위에 올라 있다.

성탄절 경기에서 루돌프 세리머니를 펼쳐 주목을 받았던 KCC 이정현은 1차 중간 집계 7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6위를 차지했다.

프로농구 허웅(왼쪽)과 허훈 형제 (사진 = KBL 제공)

이외에도 김낙현(인천 전자랜드), 김선형(서울 SK), 캐디 라렌(창원 LG), 김종규(원주 DB)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 팬 투표는 내년 1월4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구화, 몰텐 미니 골든볼,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시즌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는다.

김민정 기자

'슈팅 1개' 손흥민, 평점 6점…"기회가 없었다"

팀 내 최하 평점…은돔벨레 최고 평점 8점

토트넘 홋스퍼 공식전 100호골이 불발된 손흥민(28)이 영국 현지 매체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28일 오전 4시15분(한국시간)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울버햄튼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로써 토트넘은 최근 정규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7승5무3패(승점 26)를 기록한 토트넘은 8위에서 5위로 순위가 3계단 올라갔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토트넘 100호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실패하며 최근 3경기 연속 침묵에 빠졌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99골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이날 슈팅 1개를 기록한 뒤 후반 38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됐다.

영국 축구전문매체 풋볼런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6점을 주며 "경기 시작하자마자 왼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후엔 거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스카이스포츠도 손흥민과 함께 해리 케인, 해리 윙크스 등에게 팀 내 가장 낮은 평점 6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에선 전반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탕귀 은돔벨레가 8점으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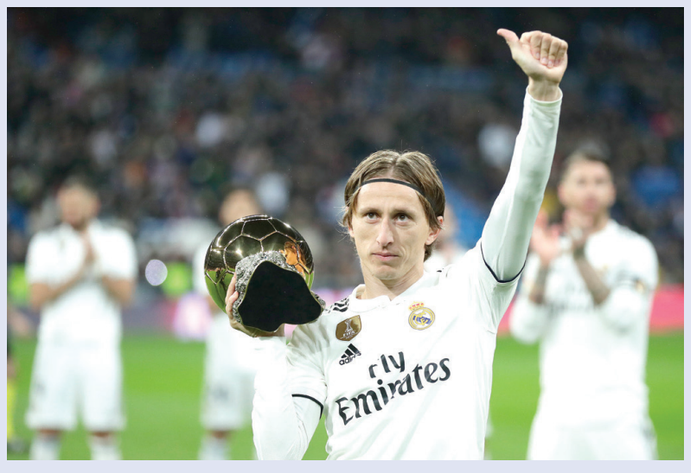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팀 내 7번째인 평점 6.7점을 줬다.

역시 은돔벨레가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7.5점으로 뒤를 이었다.

뉴시스

35세 모드리치,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 합의

친정팀 토트넘·중동·미국 러브콜 거절



크로아티아 축구 스타 루카 모드리치(35)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연장한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26일(현지시간)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와 1년 재계약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 만료를 앞둔 모드리치는 친정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복귀설이 제기됐으나, 레알 마드리드 잔류에 무게를 두며 재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한 모드리치는 이번 계약 연장으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363경기를 뛰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에 기여했다. 또 2018년엔 러시아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준우승을 이끌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를 거머쥐기도 했다.

내년이면 36세가 되는 모드리치는 베테랑 선수와 다년 계약을 맺지 않는 구단 방침에 따라 재계약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이를 두고 현지에선 레알 마드리드 시절 모드리치를 영입했던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영국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접촉했단 루머가 돌기도 했다. 또 오일머니를 앞세운 카타르와 미국프로축구(MLS)도 모드리치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 잔류를 최우선으로 두고 타 구단의 러브콜을 거절했다.

한편 모드리치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12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 중이다.

뉴시스